

發刊辭

關西의 中心地인 平壤과 國境地帶인 鴨綠江邊 義州와의 中間地帶에 位置한 우
 리 郭山은 山明水麗한 明勝地로 凌漢山 臨海山 天台山 通京山 登九峰이 屏立하고
 郭山の 젖줄기인 泗松江은 龜城郡界인 石峴에서 發源하여 中央을 貫流 黃海로 注
 入하는 下流에 一望無際한 板橋大野와 梨洞平野가 展開되고 또 宣川郡界를 흐르
 는 東萊江 沿岸에도 廣大한 平野가 展開되어 平北의 穀倉이기도 하다 郭山은 京
 義線의 要驛으로 農產物의 集散地이다 景概가 絶勝하고 農產物 其他產業이 興盛
 하여 人心이 淳朴하고 自古로 教育이 發達하여 文化의 域을 일우었다 李氏王朝
 前半期 二百餘年間 西北人의 出世길을 막았다 壬辰倭亂時에 宣祖大王께서 義州避
 亂時에 西北人士의 忠君愛國心を 皮膚로 느끼고 平亂後 西北人에게도 科擧令을 宣
 布하니 濟々多士가 大擧應試하였는데 淸北十九州中 最小郡 郭山 徐萬鎰氏가 單獨
 及第하여 全國을 振感시켜 人傑은 人靈이라는 말을 實感케 하였다
 이러한 由緒깊은 名邑을 地域의 狹少로 文化의 名邑 小京師라는 名邑 定州에
 合付함에 廢邑의 遺憾이 있을수없다 우리의 先祖 禮曹正郎 公諱 鼂氏가 이땅에
 奠基함으로써 後承이 蔚然하여 諱善言은 宣祖임금 蒙塵길을 호위한 功으로 軍資

監 主簿의 職을 拜受하고 諱 龍은 戊午 明清 戰爭에 援明軍 副元帥 金慶瑞의
 左翼將이요 堂倒 務義는 參謀士로 瀋河(奉天)會戰에서 殉節하고 其後九年 丁卯胡
 亂時에 天慶은 都總官으로 應參은 中啓將으로 應哲은 義兵將으로 清漢山城守備戰
 에서 衆寡不敵으로 殉節하다 仁祖朝에서 龍은 龍驤衛 副護軍 務義는 禮賓寺參奉
 應參은 通政 掌隸院判決事 應哲은 虎賁衛 右部將의 職을 各々贈職하니 이들은 再
 從兄弟 叔侄間이다 憲宗乙未에 郭山邑東에 祠堂을 세우고 春秋로 奉享하며 號를 五
 忠祠라하고 忠勲錄에 記錄하고 子孫에게는 給復(稅金과 賦役全免)의 恩典이 下賜되
 었다 諱 宇侗은 父母喪에 斷割한 孝子로 洪景來反亂時에 官長이 被逮拘禁됨에 挺
 身突入하여 破獄奪還함으로써 表旌을 받고 諱 履瓚은 性理學者로 平北公都會所 訓
 長으로 後進에게 傳達하는 教育을 精誠껏 하였으니 誨人不倦하는 孔子의 徒라 할 것이
 다 諱 濟河는 日政時 中樞院參議職을 받았다고 親日人士로 生覺함은 잘못이다 그
 有名한 三一運動에 日憲이 定州愛國人士 六百餘名을 逮捕拘束함에 布衣寒士나 다
 림없는 一介郡叅事로 當局에 抗告하여 全員釋放시키고 또 定州趙梶均과 郭山 李鎮秋가
 各々郡監으로 上海臨時政府 連通制下에서 活動하다가 拘束됨에 또 當局에 抗告하여
 釋放케 하고 其他 愛國志士를爲하여 積極活動한事例는 許多하다 癸亥年 海盜로 그
 有名한 同仁水利組合蒙利區域 防波堤가 全潰됨에 道郡 兩當局에서 緊急修築할 것을 總

督府에 陳情하시였으나 豫算이 없다고 拒絕하니 또 上京하여 總督을 面會 當日로 解決하고 丙寅年에 定州署 司法主任 全容煥이 定州靑年들이 抗日團을 組織하였다는 造作劇을 꾸며 前途洋々한 靑年 六十餘名을 逮捕拷問함에 또 抗告하여 全員 釋放시키고 全容煥 警部를 罷免케하였다

諱 秉燾는 李氏王朝末葉에 司諫院 正言을 經하여 高宗帝 秘書丞으로 있었으나 庶民의 人品으로 우리宗親의 中心地인 南山里에 學校를 設立하며 盖尾를 買入이 難하여 自家를 草葺으로 變更하고 그 盖尾를 學校에 使用 教育事業으로 一生을 바쳐 宗中은 勿論 郭山의 光彩를 더하고 天才詩人 素月 斑滉은 宗門과 鄉土의 名譽를 世上에 높였다 우리 金氏는 郭山에 奠基한 以來 子孫이 繁盛하여 累次 修譜하였을 뿐더러 距今五十四年前 己巳에 叅議公 濟河어른이 自辨物力으로 修譜한 以來 時局關係로 譜事는 學論도 못하고 解放과 六·二五事變을 前後하여 數多한 宗親이 越南하여 望鄉의 꿈을 달래며 累次會合하다가 宗中에 뜻있는 어른들이 精誠을 다하는 수고로 修譜라는 큰 事業을 着手하니 特히 資金과 收單에 精力과 時日을 要하게 되었다 이것은 宗中 僉賢이 事業의 時間을 割愛하여 이룩한 것이다 族譜는 氏族의 根源이요 正史임으로 後孫에게 바로 傳達하여야 한다는 責任感으로 이룩한 것이다 西洋人은 物質文明과 功利에만 置重하더니 近來에 우리의 家

族制度를 본받아 自己들도 祖上찾는 運動을 하며 特히 黑人들은 自己의 血統과 地緣을 깨내며 祖上の 뿌리를 探知發表함으로써 感銘을 주는 바이다

우리는 韓國의 歷史와 傳統을 떠날수 없으니 일단 有事時에는 門中과 故鄉의 모든 要因과 愛國愛族을 爲하여 희생을 아끼지 마라야 한다 우리 宗氏들은 越南三十有餘年에 祖上の 遺業을 받들어 族譜를 編修하게 됨은 祖上の 默佑로 이룩된 것이니 눈물흘여 拜伏感謝드리며 하루빨리 統一되여 南北宗親이 한자리에 會同하여 完全한 系譜編修를 기다리며 北轍故鄉을 바라보며 所懷를 亂筆로 草하여 發刊辭로 합니다

一九八二年十月 日

序 文

昭穆을 叙述하여 親疎의 序列을 分別하고 宗親間 禮儀와 敦睦을 修行함에 重
 要함으로써 先人들이 族譜를 펴낸것이다 우리 公州金氏는 新羅 大輔公으로부터 비
 롯하여 高麗 平章事 贈諡英憲 諱之垓 鰲山君을 受封하고 清道로 行貫하고 李朝
 諱 漸은 領議政으로 贈 諡胡剛이요 一傳하여 諱 義孫은 禮曹叅判으로 公州伯을
 受封하고 再傳하여 諱 鼂는 禮曹正郎으로 清州로부터 郭山에 從來하여 先考의 爵
 位로써 貫을 公州라 改稱하고 後進을 敎導하시며 一生을 마치시니 後承이 번성
 하여 關西著族으로 發展하여 忠臣烈士와 文章德行의 士가 繼起하여 祖宗을 顯揚
 하고 孝子烈婦가 往々旌閭로써 門戶를 빛나게 하였음은此가 偶然이 아니요 祖
 考의 積德所致라 만일 府君이 樞要의 位에 오르셨드라면 功蹟은 靑史에 빛나고
 文章은 足히 一國을 潤華케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인데 禮郎의 位에서 被遣되
 었으니 此는 氣는 强하고 數는 局限된 所致라 그러나 子姓이 昌盛하여 科宦과
 文行이 蔚然하여 一邦의 名族됨에 사양할바 없으니 此로써 仁人의 報應받았음
 을 證明함에 足하도다 西入이 近於六百年에 郭山以外 他郡散居하는者 그數를 算
 키 難함으로 우리 先人들은 三十年을 一代로하여 修譜하여 宗親間 敦睦維持에

誠意를 克盡히하였다 己巳修譜가 于今五十有四年에 尊行高齡은 차례로 下世하시고
 後孫은 日益 번성하여 修譜가 要請되나 時局關係로 遷延함이 今日까지 맞혔다
 昨冬에 뜻있는 宗親들이 會座하여 越南宗親만이라도 系譜를 編修하여 後日 南
 北統一에 對備하자는 뜻에서 迂餘曲折를거쳐 只今에 成編하니 北韓族親이 脫落되
 여 完全한 一源一本의 譜牒은 못되나 우리先代의 巨功偉蹟은 廣採記錄 하였으니
 後日 南北統一譜 作成에 主導的 役割을 할것을 믿어 疑心치 않는바이다

西紀一九八二年 月 日

後孫 治 鎬 謹誌

公州金氏族譜

入郭始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鼉

133

子海

信子

得壽

子師

固子

壽堅

子世

俊子

殷老

一諱世桓官禮曹

正郎以考受封公

州伯故改貫公州

配位姓氏失傳墓平

安北道定州郡玉

泉面上端泊朱氏

嶺西葛峴東蜜峰

下長乳原甲坐合

青龍細腰白虎環

抱四世同岡癸未

立碣石人石床樽

石

一諱起伯

配位姓氏失傳墓上

同合有石床樽石

一諱泰

配位姓氏失傳墓上

同合有石床樽石

一諱思古

配位姓氏失傳墓上

同合有石床樽石

將仕郎訓導

配恭人溫陽孟氏墓

開元寺國王峯南

脉玉象灘細腰上

兩邊瘦脊子坐合

堅碑石床樽石人

石穴下有墓道碣

西有齋室廻峴江

水爲內青龍牙山

洞水爲內白虎穴

前合襟青龍盡頭

爲鎌隅

將仕郎訓導

配位姓氏失傳墓南

山龜泉峯西良坐

左齊疊及龜天井

石澗水堅碑有石

床第三子殷淑第

五子殷贊无後

長派

子殷老

子殷哲

南山長派

子殷築

草坪派

子殷憲

名字失傳

禮洞派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胤子玉清

259

祔

上端道直模流嶺

上帽岩下酉坐墓

子龍班

234

配位姓氏失傳墓郭

官顯信校尉

山郡弓面坊嚴庄

子龍

210

有立碑石床

配位姓氏失傳墓合

龍良坐

墓郭山上端村青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

子世